

# 테스트문서

이 문서는 직지프로젝트에서 가져온 것이며, 직지라이센스를 따릅니다.

---

## 한글타자기를 만들기까지

---

공 안과를 찾아온 한글 학자 이극로 선생

한글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 또 일제 때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1938년에 서울 안국동에 개원한 공 안과는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 개인 병원이었다. 앞에서 조금 밝힌 바 있지만, 어느 날 허름한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 한 분이 들어왔다. 안질이 있어서 왔다는 것이다. 치료를 받고 나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불쑥 우리글에 대한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우리 조선 민족이 갖고 있는 한글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의사 검정 시험에 필요한 일본글만 공부했지, 소위 언문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문이란 글은 세계에서 서도 보기 드문 훌륭한 글인데, 일본놈들이 이 글을 못 쓰도록 탄압을 하고 있죠. 아니, 일본놈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까지도 제 나라 글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한 편이죠. 아니, 한술 더 떠 아예 한글은 글자가 아닌 것인양 무시하는 식자들도 많습니다.”

바로 나를 두고 하는 소리 같기만 했다. 물론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조선말이었지만, 나는 그때까지 전혀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한글에 대해서 은밀히 깨우쳐 주는 사람이나, 교육자나, 동무나, 기관도 내 주변에는 없었다. 그 환자 덕분에 나는 뒤늦게나마 우리 한글을 알게 되었고 한글이 우수한 글이란 점도 깨닫게 되었다.

한글에 대한 그의 애정은 종교적 신앙처럼 뜨거웠다. 그렇게도 철저한 분이였기에 눈을 치료받으러 와서 한글에 대해서 까막눈이던 안과 의사인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민족 문화를 바로 볼 수 있는 시력을 바로 잡아 준 것이다.

그는 처음 보는 의사에게까지 한글을 전도할 수 있었던 신념에 가득 찬 그런 분이였다.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도 서슬이 시퍼런 일본 제국 치하에서 ‘우리 조선 사람이 한글을 알아야만 우리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였다. 지사적 인상이 풍기는 훌륭한 사상가 같았다. 그분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민족 정신을 불어넣어 준 것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나라의 훌륭한 글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었다.

1934년 1월 25일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되었지만, 학자들이 계몽하는 시기였다. 가끔 신

문에 문필가들이 이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었으나 나는 예사로 보았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의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내가 그렇게도 유식하고 민족 정신이 투철한 한글 학자를 만난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다. 내가 그 때 그분에게 그같은 자극을 받지 못했다면 어쩌면 고성능 한글 타자기를 발명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나는 해방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이 조선어 학회 중진인 유명한 한글 학자이자, 독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저명한 이극로 박사란 사실을 알았다.

## 내가 처음 만든 한글 시력 검사표

그 때 도라흙이라고 하는 돌림 눈병이 한창 번지고 있었다. 나는 “도라흙을 예방하려면?” 이라고 하는 계몽용 전달을 한글로 만들어 여기저기에 뿌

리기도 하고, 이를 병원 대합실에 두어 누구나 마음대로 집어 가도록 하였다.

그 무렵의 시력 검사표는 모두 일본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일본 '가나'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라도 시력 검사표를 한글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조선인 제약회사로 이름난 유한양행에 제안하여 시력 검사표를 한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시력 검사표가 탄생하였다. 그러자 일본말을 모르던 한국 사람들은 여간 좋아하지 않았다.

이 모두가 다 이 한글 학자가 눈병으로 내 병원엘 찾아와 준 것이 인연이 되어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해방이 되어 온통 누리가 영어 바람에 휩쓸렸을 때에 웬만한 지식인들은 영어 강습에 열을 내고 있었지만, 나는 이극로 박사의 영향을 받은 탓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배우는 한글 첫걸음부터 익히기로 했다. 광복한 나라의 국민 자격을 따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삼고 공부를 한 것이다. 훌륭한 한글을 그 때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대면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마저 들었다. 어느 날 이극로 박사가 한글만 쓰는 북한에 갔다 오신다면서 나에게 여비를 꾸어 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 때 돈 40만 원을 드렸다. 그 뒤 영영 그를 다시 만나 뵈지 못하고 말았다.

## 타자기와의 첫 만남

내가 영문 타자기를 처음 구경한 것은 경성 제대 의학부(서울 대학교 의과 대학의 전신) 연구실에 있을 때였다. 자세히 보니, 정말 글자 만드는 신기한 기계였다. 딱딱딱 계속적으로 글자를 쳐 나가는 이 기계를 그 때 난생 처음 보았다. 나도 일본 말로 된 내 연구 논문을 남들 하듯 영어로 간추려서 두에 실어야만 했다. 영어에 능통한 일본인이 번역해 준 영어 문장을 내가 직접 타자기 앞에 앉아 좌우 두 손가락으로 또박또박 쳐 나갔다. 이것이

나와 타자기와의 첫 만남이다. 로마자가 자동으로 찍히는 것을 호기심에 차 관찰하면서, 마치 바느질이 자동으로 되는 재봉틀과 비슷한 기계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 당시 내가 직접 타자기 발명을 해 보겠다는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다만 막연하게나마 우리 한글도 이런 타자기로 찍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정도의 생각만 했을 뿐이었다. 기계에 대한 내 관심은 남다른 데가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어린 시절에 재봉틀이란 것이 우리 나라에 처음 수입되었다. 우리 집에 있던 재봉틀이 동네의 큰 구경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 산간 벽지인 우리 집에까지 있을 정도로 재봉틀이 보급되었다. 그 때 내 호기심은 '사람 대신 바느질을 해주는 신기한 기계'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 기계의 머리 부분을 뒤집어 젖혀놓고 바느질이 자동으로 되어가는 구조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기계 구조가 묘한 것을 알고 깊이 감탄한 적이 있었다. 그 때 내

나이는 불과 열 살 안팎이었다. 그러니 타자기에 대한 관심도 그런 종류의 것이어서 신기한 것에 대해 품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었다.

내가 본격적으로 타자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뒤였다. 해방이 되자 우리 나라 의학계의 중견이었던 일본 교수들이 물러나게 되면서, 우리 나라 의학도는 우리 나라 의사들에 의해 양성되었다. 나도 후학들을 위해 소용이 될 구실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제 일착으로 시도한 것이 내가 일제하에서 일본말로 만들었던 《소안과학》(서울 충무로 2가 소재 마루젠 서점 발행)이란 책자를 한글본으로 번역하여 발행하겠다는 생각이었다. 일본말로 된 것을 번역하는 작업은 내가 맡아 했지만, 또한 사람은 괴상한 버릇이 있어 두세 번 읽어야 뜻을 간신히 알 수 있는 글씨였다. 나는 이 때 타자기를 쓸 수만 있다면 매우 빨리 짚을 수 있겠고, 또한 깨끗한 글자로 정서를 할 수도 있겠다는 데 착안하였다.

나는 결정하기까지 많은 것을 생각하는 편이지만, 일단 뜻이 서게 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든다. 내가 한글 타자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확실히 망상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나는 일사불란하게 한글 타자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잊혀진 선구자들: 이원익 씨와 송기주 씨

솔직히 말해서 한글 타자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생각뿐이지, 나는 이제껏 타자기의 구조적 원리를 배운 적도 없고 기계 공학적인 설명서를 본 일도 없었다. 누구한테 교습을 받을 곳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실물을 보고 혼자서 연구하는 길 뿐이었다. 그래서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타자기를 구해 놓고 독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문방구를 겸한 사무 기기 상회에 나가 보았다. 여기서 나는 뜻하지 않게 허름한 두 개의 한글 타자기를 발견하였다. 재미 교포 이원익 씨와

송기주 씨가 개발했다는 한글 타자기였다. 나는 두 대의 한글 타자기를 사 들고 왔다.

두 분이 개발한 타자기는 다 그 당시 미국에서 널리 사용하던 영문 타자기에 한글 자모를 대치하고, 한글 구성 원리에 따라 필요한 만큼 부동키(사일렌트 키)를 추가한 구조였는데, 이원익 씨의 것은 1910년까지 쓰여졌던 12글쇠 7열의 84글쇠식 타자기였고, 송기주 씨의 것은 1930년대에 모양이 개량된 42글쇠 2단 슈프트식, 즉 현재의 수동 영문 타자기와 비슷한 UNDERWOOD 포터블 타자기였다. 타자기의 글쇠 수의 관계로 이원익 씨의 타자기는 타자의 근본 원칙인 촉지법(터치 시스템)이 불가능하였는데 반하여, 송기주 씨의 것은 촉지법이 가능한 기계였다. 두 분 것이 다 한글을 가로로 찍어 세로로 읽게 된 형식이었다. 물론 그것은 당시 모든 인쇄물이 세로로 내려썼기 때문이었다.

자모 구성에 있어서 이원익 씨의 것은 다섯벌식

인데, 닿소리(자음)와 홀소리(모음)는 부동키로, 받침이 붙지 않는 닿소리와 받침은 찍고 가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윗글자쇠를 누르거나 굳손질 없이 한글을 찍을 수 있었다. 문장을 자형에 따라 구분 타자하면 정체 없이 전진 인자 되도록 한 것이었다. 한편, 송기주 씨의 것은 닿소리 3벌(가, 고, 과 등에 쓰이는 3종)과 홀소리 1벌의 4벌 배치로서, 받침은 가로 홀소리 글자의 닿소리를 겸용 하도록 한 것이었는데, '가'의 닿소리를 아랫단에 놓고, '고'의 닿소리를 윗단에 배치하여 '고'자의 닿소리나 받침을 찍을 때는 반드시 쉬프트를 눌러야 했다. 글쇠의 동작은 닿소리는 부동, 홀소리는 전진식이어서, 받침을 찍고 난 뒤에는 스페이스 바를 눌러야 하며, 필연적으로 글줄에서 받침이 다른 글자와 다음 글자 사이에는 불필요한 반글자(1/2 스페이스) 간격이 생기는 결함이 수반되는 것이었다. 타자 속도를 비교할 때, 송기주 씨의 것이 비록 촉지법으로 타자가 가능하기는 하나, '고'자

형의 닿소리와 받침을 찍기 위한 약 50의 쉬프트 키 조작을 해 주어야 하고 받침을 찍은 뒤의 약 25의 스페이스 바 조작을 또 해 주어야 했다. 그리고 자모 배열에 있어서도 두 분의 제품 모두가 자모의 사용 빈도를 무시하고, 한글 자모를 적당히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었다. 글씨 모양은 세로쓰기로서 예뻐고, 속도는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빠르지만, 영문 타자기의 속도에 비하면 절반 정도이었다.

그러나 저러나 네모 반듯한 한글이 세로로 예쁘게 찍혀 나오고 있으니, 아무리 찍는 방법이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해도 한글 타자기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나는 어딜 가나 내 아버지는 어버이이듯 우리 한글 타자기의 원조는 어디까지나 이원익 씨로 모셔야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송기주 씨는 고국에 돌아와 한국 지도 등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 하다가 6·25 사변 당시 납치되었다. 북쪽에 간 뒤 한글 타자기 개발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한글

타자기 연구가로서 그분이 만약 이북에서 활약을 계속할 수 있었다면 상당히 큰 업적을 남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납치 뒤의 소식이 못내 궁금하기만 하다. 6·25 사변 전에는 그분은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 한글 기계화를 위해 서로 의논하던 동지였다.

잠깐 여기에서 한 마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가끔 나에게 관한 글이나 말을 하는 사람 가운데 나를 가리켜 흔히 ‘한글 타자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 나로서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기회 닿는 대로 잘못된 점을 말해 주기도 했지만 일일이 찾아다니며 수정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못된 기록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해서 내 나름대로 공식적인 기회가 닿으면 꼭 정정해야겠다고 별러 오던 참이었다. 내 공식적인 기록이 될 자서전에서나마 분명히 그분들의 업적을 밝히고 싶다. 한글 타자기의 처음

발명자는 이원익 씨란 점을 재삼 밝혀 둔다.

참고로 라이노타이프로 한글을 찍을 수 있는 한글 식자기의 발명가는 이대위란 분임을 밝혀 둔다. 그의 식자기로 하와이 교포 신문과 로스앤젤레스의 신한민보가 발행되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내 나름대로 먼저 개발한 발명품보다 월등하게 속도가 빠르고 글씨꼴도 간편한 가로쓰기의 한글 타자기를 세벌식 입력과 세벌식 출력으로 개발하고 싶어서 연구를 시작했다.

신체를 해부하듯 타자기를 발기발기 뜯어  
놓고

타자기 파는 가게에 가서 이번에는 수동식 영어 타자기(당시 전동 타자기는 없었다)를 사 왔다. 신체를 해부하듯 그날로 타자기를 발기발기 다 뜯어 타자기의 기본 구조부터 익히기 시작하였다.

그 때 일본에서는 유명한 동경 대학 공과대학에 시계, 타자기, 재봉틀 등의 세 가지 연구과를 두

어, 정식 학문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타자기 연구를 위한 어떤 교육 기관도 없었고, 참고 서적 하나 구해 보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내가 배울 수 있는 길은 영문 타자기의 기계 구조를 살핌으로써 눈치로 기계 공학적인 원리를 알아내는 것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일본에서 발행한 《타이핑》이라는 책자를 유일한 참고서로 삼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였다.

내 타자기 개발의 동기가 내가 지은 《소안과학》 번역 원고 정리에 있었다고 한 바 있는데, 일본말로 저술한 원서가 가로 조판 형식이었고, 우리나라의 추세가 일부 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는 교과서나 과학 서적 등이 가로 조판 쪽으로 기울었으므로, 나는 이원익 씨나 송기주 씨의 것과는 달리, 세로 글줄 대신 가로 찍고, 가로 읽히는 가로쓰기 한글 타자기의 개발을 일차적 목표로 삼았다.

나는 어느 정도 기계에 대해 알게 되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글의 음운 조직을 공부하였다. 한글

의 기막힌 규칙적 법칙에 절로 탄성이 나올 지경이었다. 나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한글쓰기의 기계화를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누구나 한글 타자기를 연구하는 사람이면 으레 처음 부딪치게 되는 골칫거리가 있다. 받침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영어처럼 한 자 한 자 글쇠를 누를 때마다 소정의 길이만큼 옆으로 전진만 하면 간편하겠는데, 한글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받침이 있을 때마다 옆으로 전진을 해서는 안 된다. 받침은 홀소리의 오른쪽으로 전진해서 찍으면 안 되고, 홀소리 밑으로 내려가서 찍혀야 한다.

홀소리만 해도 그렇다. ㅏ, ㅑ, ㅓ, ㅕ 처럼 모든 홀소리가 닿소리의 오른쪽에 언제나 붙게 되어 있다면 오죽 좋을까? 글쇠를 누를 때마다 영어처럼 오른쪽으로 전진만 하면 좋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ㅘ, ㅙ, ㅚ, ㅛ 등 아래로 붙는 홀소리가

있어 일률적으로 영어 타자기 흉내만 낼 수 없게 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영어보다는 까다로운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한글은 구조가 무척 복잡한 것 같지만 개성이 뚜렷한 일정한 법칙이 있는 글임을 알았다. 이것이 한글 타자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연구 과제란 것도 알게 되었다. 초보적인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이 받침 때문에 한글을 숫제 풀어쓰기로 하자면서 세종 임금님을 원망하기까지 하고, 또 두벌식 풀어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글 타자기를 연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초기에 두벌식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부딪치기 마련이다. 이는 한글 타자기 연구의 초기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지금 현행 맞춤법에 맞게 기계화할 생각은 안 하고, 반대로 한글을 받침 없는 맞춤법으로 바꾸기를 바라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나도 한글의 음운 구조가 두벌식으로 풀어쓰게 되어 있

었다면, 한글의 기계화는 월등히 쉬웠다는 엉뚱한 환상 속에서 오랜 시간을 방황하였다. 풀어쓰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두벌식으로 현행 맞춤법을 짤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쉽사리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시작한 일이 뜻밖에도 제대로 풀리지 아니하여 갖은 고생을 다했다. 차라리 이미 발명되어 있는 한글 타자기를 쓰는 쪽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암담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념하지 않았다. 끈질기게 연구를 계속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의 세월이라 생각하고 버티어 나갔다.

병원 일은 뒷전에 돌려놓고

나는 한글 원리와 일치하는 세벌식 타자기 개발을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연구하던 두벌식 방식을 미련 없이 포기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나라에서는 기현상이 생겼다. 내가 이미 40여 년 전에 만들었다가 기계 공학적인 무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내

버린 바로 그 두벌식 시스템을 요즘에 와서 정부 표준판이라고 정해 놓고 있으니,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두벌식은 받침이 있을 때마다 쉬프트 키를 누르는 비능률적인 방식이다. 이 때문에 우리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수동식 타자기 자판과 컴퓨터 자판이 다르고 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짚어야만 하는 해괴망측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나는 두벌식 자판으로 만든 타자기를 포기한 다음에 우리 한글의 구성 원리에 맞추어 세벌식 타자기를 개발하였다. 첫소리인 닿소리와 홑소리를 짚고 나서는 백스페이스 키를 일일이 눌러 받침을 짚는 방식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식도 두벌식 방식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비능률적인 것이었다. 나는 앞의 분들이 개발한 한글 타자기보다 아주 획기적인 타자기 개발을 목표로 더욱 정진하게 되었다. 우리 집 사랑방은 해체된 타자기와 쇠붙이 부스러기로 마치 고물상처럼 지저분하기만

하였다. 병원 경영보다 타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려니, 채용 의사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공 박사한테 직접 진찰을 받겠다’는 환자에게 차츰 실망을 주게 되었으니 병원이 잘 될 리가 없었다. 병원 일은 내버려 둔 채 쇠붙이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나에게 가족들도 참다못해 내놓고 못마땅하다고 불평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한 일이었다. 병원이 문을 닫게 되었으니 이러다간 집안까지 망하지 않겠느냐고 항의하는 것이 아닌가? 타자기에 미쳐 병원 망하게 되었다는 소리가 번지게 되자, 동무들마저 스스럼없이 한마디씩 충고를 하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성화였다. 온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연구자의 심정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기만 했다. 그들은 피가 마르는 듯한 순간 순간과의 투쟁이 연구 생활이란 것을 알 리가 없는 일이었다.

“병원이나 잘 경영할 일이지, 눈 의사가 무슨 타자기를 발명한다는 거야.”

“한문자도 안 나오는 타자기를 누가 쓰겠다고 하기에, 한글만 나오는 타자기를 만들고 있는가?”

“신문, 잡지, 공문, 편지 등 모든 글을 내려쓰고 있는데, 왜 가로쓰기 타자기를 만들고 있는가?”

물음과 충고가 여러 가지였다. 위로도 격려도 아닌, 조롱에 가까운 말로 연구 중단을 종용하는 이도 있었다. 나는 이같은 말에는 개의치 않기로 하였다. 내 원대한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섭섭한 생각을 할 경향도 없었다. 이같은 소리에 는 일체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시행 착오가 계속되는 가운데 6개월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타자기 연구한다고 아주 돌아 버렸다는 소리도 들렸다. 그런데 남이야 뭐라고 하건 간에 당장 내가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한글을 한글의 특성대로 첫소리인 닿소리를 찍고, 다음에 가운뎃소리인 홀소리를 찍고 나중에

끝소리인 받침을 찍는 세벌식 원리의 타자 장치를 발명해야 간편해질 것이란 판단 아래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간단하게 세벌 원리로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번번이 벽에 부딪치는 것이었다. 실의에 빠지기도 했다. 몇 번이고 모든 것을 집어치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우리 집 사랑방은 타자기를 연구한답시고 벌여 놓은 연장과 부속품으로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도대체 응접실인지 대장간인지 모를 정도로 어수선하였다. 나는 병원 경영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병원을 문닫게 됐다는 가족들의 불평에도 무감각해졌다. “환자들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하던 간호원의 목소리는 점점 풀이 죽어 갔다. 이제 환자들의 불평이 노골적으로 들려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연구에 열중하다 말고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날 수는 없었다. 공 박사 미쳤다는 소리가 점점 많이, 더욱 크게 내 귀에 들

려 오기 시작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큰 일을 위해서는 작은 일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억지 같은 소리를 해 가며 가족이나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내 말에 동의해 주는 이는 없었다.

어느 날 불평을 하는 아내에게 무심코,  
“지금처럼 소란한 시대에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사람은 위급할 때 살 수 있지만, 돈이나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요.”라고 말했다. 아내도 이 말을 어떻게 새겨들었는지 말이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 뒤, 6·25 사변 때 바로 이 타자기 덕분에 내가 생명을 건졌으니 그 때의 내 예언은 한참 뒤에 적중한 셈이다.

“맞았어, 바로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것이!”

이렇게 나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애간장을 태우는 연구 작업을 계속했다. 그런데도 기발한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

다. 이번에는 네벌식으로 된 송기주 씨의 세로찍기 타자기를 세벌식으로 간편하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수많은 활자를 일일이 동강을 내어 땀질을 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야만 세벌식 구조로 개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자꾸 잔일만 늘어나게 되어 시간 소모가 많아졌다. 나는 학식과 교양을 겸비한 이임풍 씨를 내 전속 연구 기사로 채용하여 한방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연구를 계속했다. 마침내 세벌식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 역시 송씨 것보다 속도는 훨씬 빨라졌는데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가로쓰기가 되지 않았다. 나는 미련 없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것을 불문에 부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여태까지 저질렀던 갖가지 시행착오나 몇 종류의 제작품을 만든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입술이 타 들어가는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었지만, 내 집념은 뜨거웠다.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는 일종의 오기가 발동되었다. 이같은 확신 속에 끈질긴 투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한글 자체가 세벌식으로 되어 있으니 반드시 아주 간단한 타자 방식이 있을 것만 같았다. 이런 식 저런 식 별의별 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내가 원하는 해답은 나오지 않아 초조해졌다. 과학자는 항상 냉정해야 한 다는데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았다. 초조한 마음이 일기 시작하면 차분하게 발명의 실마리를 잡을 수 없다.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가끔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져 가는 마음을 달래곤 하였다. 나로서는 심기일전하여 연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다듬는 심각한 시간이었다.

비자동식 세벌식 한글 구성을 쉽게 또 몇 가지 방법으로 실험했다. 재봉틀의 자동화처럼, 타자 기의 세벌식 자동화가 안 될 리 없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하고 만들어서 실험을 해 보면 생각과는 달리 번번이 실패였다.

이렇게 암담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이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기계에 매달리고 있었다. 한글 자모를 세벌식 자동으로 타자할 수 있는 구조의 실마리가 도무지 풀리지를 않아 손을 툭툭 털고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잠자리에서도 잠을 곧 이루지 못하고 이 궁리저 궁리하다가 잠을 청하고자 했다. 바로 그때 불현듯이 내 머리를 스쳐 가는 착상이 떠올랐다. 그런 것을 영감이라고 한다던가? 닿소리와 홀소리를 짝은 다음, 받침을 따라가서 짝히도록 하면 자동화가 가능하겠다는 생각과 도심에 글자가 짝히는 가이드를 한 개 더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받침이 짝히는 안내 구멍을 한 개 더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것이 적중했다. 기막힌 착안이었다. 세계 어느 나라 타자기에도 가이드가 두 개씩 갖춰져 있지는 않다. 나는 이것을 쌍촛점이라고 나중에 이름 붙였다. “맞았어, 바로 이거야, 내가 원했던

것이!”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곤하게 옆에서 잠들어 있는 이임풍 씨를 깨웠다. 내 착상을 설명하였다. 선잠을 깨 눈을 비비대는 이씨와 나는 또 다시 공작용 책상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쇠를 자르는 줄칼질을 하기 시작했다. 시계는 새벽 네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같은 발명의 착상을 해낸 때는, 내가 이원익 씨 타자기와 송기주 씨의 타자기를 사다가 공부하기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고, 본격적으로 세벌식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집중적으로 세벌식으로 연구를 한 지 거의 40일쯤 되는 날 밤이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골칫거리라고 생각했던 받침 처리를 끈질긴 생각과 노력 끝에 쌍초점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내 기쁨은 이루 필설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 이 순간에 얻은 발명의 힌트로 마침내 수동식 기계로 아주 간편하게 그리고 자동

적으로 빠른 속도로 한글을 구성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뒷날 내가 우리 나라와 미국에 발명 특허를 얻게 된 이른바 쌍촛점 방식인 것이다. 이것도 이상적인 타자기로 곧바로 손조롭게 발전한 것은 물론 아니다. 이 방식대로 망치로 두들겨가며 줄칼질을 하고 펜치, 땀질 도구, 동활자 조각 등을 동원해 시제품을 한 대 만들었다. 자판은 손으로 한글을 쓰는 순서대로 닿소리는 왼쪽, 그리고 흘소리와 받침은 오른쪽에 배치한 자판으로 2주일 가량이 걸렸다.

예상한 대로 자동화는 되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글쇠를 쳐 나가는 데 활자대의 충돌이 심했다. 그러니 빠른 속도로 찍을 수가 없었다. 궁리 끝에 나는 자판의 위를 반대로 바꾸기로 하였다. 닿소리를 오른쪽에, 흘소리와 받침을 왼쪽에 놓기로 하고, 또다시 며칠 동안 줄질, 땀질을 해가며 겨우 제2의 시제품을 한 대 만들었다. 그제

야 타자가 손조롭게 미끄러져 나가듯 아주 간편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기계 공학적으로 무리가 거의 없는 이상적인 자판이란 확신이 생겼다. 이렇게 글자판을 필순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놓는 실험으로 이상적인 한글 타자기를 발명할 수 있었다. 손가락 하나 하나의 움직임의 능률까지도 효율적으로 감안해야 된다는 드보락 박사의 인간 공학적인 이론(이 이야기는 기회 있을 때 따로 설명하려함)과도 맞는 합리적인 글자 배열로 마침내 세벌식 자판 시스템을 탄생시킨 것이다.

어떤 발명이든 발명된 뒤에는 쉬운 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발명이란 많은 정력과 시간, 그리고 끈질긴 의지와 많은 돈이 소비되는 것임을 체험하게도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내 신념을 스스로 입증시킨 것이라 생각한다.

## 춘원 이광수와 나

이렇게 내 손으로 두들겨 세벌식 타자기 견본 한 대를 만들어 냈다. 활자는 별도로 전문 조각가에 맡겨 구리 활자로 만들었다. 손으로 조각한 활자로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찍힌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글씨꼴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해 보았고, 손으로 만든 조잡한 이 기계를 미국 언더우드 회사에 설계서와 같이 보내 제작에 참고 품으로 쓰여지도록 하였다.

내 연구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그 때까지 별로 눈여겨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대다수가 “누가 한글만으로 글을 쓰기에 한글만을 찍을 수 있는 타자기를 만들고 있는가? 안과 의사가 눈 환자나 돌보아 줘야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몇 사람만은 놀랍게도 관심 표명을 해주었다.

하루는 춘원 이광수 선생이 눈병을 치료받기 위해 내 병원에 왔었는데, 내가 집에서 타자기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말을 듣고, 내가 연구하고 있는

우리 집 사랑방으로 찾아 내려왔다. 그 당시 병원은 2층에, 살림집은 아래 층에 있었다. 춘원은 내가 개발해 놓은 타자기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서, 대뜸,

“공 박사! 타자기 완성되거든랑 제1호를 내가 쓰도록 해 줘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것만 있으면 나는 1년 걸려 쓸 글을 4개월 동안에 다 해치우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겠는걸.”

하고 기뻐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춘원은 과연 선각자였다. 이미 1934년 3월 2일자 조선 일보에 송기주 씨가 개발한 한글 타자기에 대해

“송씨의 타자기의 발명은 위대한 것이다. 우리도 서양 사람들처럼 기계로 글을 쓰게 되었다. 이 타자기 시스템을 라이노타이프에 옮긴다면 우리 나라 문화에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요지의 놀라운 글을 쓴 일이 있었다. 발명가인 나보다도 훨씬 오래 전부터 타자기의 위력을 아는 분이었고, 라이노타이프란 자동 식자기의 성능까지도 아는 분이었다. 이같은 춘원과의 만남은 확실히 나에게 큰 위로였으며 격려가 되었다. 그분은 그 때 이미 내가 개발한 한글 타자기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군정청 문교부의 편수국장 스미드(Smith) 씨가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며 매주 토요일마다 나를 찾아오곤 했었다.

“장관이 어디에서 들었는지, 공 박사가 한글 타자기를 연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찾아가 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 문교부에서 교육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미국에서 풍요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유달리 교육에 가장 중요한 한글 타자기가 없는 것이 크나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군정청 문교부에서는 한국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글 타자기가 소중히 다루어지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발상 아래 여러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미국 레밍톤 타자 회사에서 재미 교포인 김준성 목사가 개발한 한글 풀어쓰기 타자기 200대를 들여다가 각 교육 기관에 나누어주었지만, 그것은 실용 가치가 전혀 없어서 모두 영문 타자기로 개조해 쓰고 있는 실정이라 했다. 그런 사정으로 문교부에서는 내가 연구 중인 한글 타자기의 탄생을 몹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했다. 이런 연유로 스미드 국장은 매주 토요일이면 와서 한글 타자기의 완성을 알아보곤 했다.

그 당시 일반 사회에서나 관공서에서는 한문을 섞어 쓰지 않고서는 공문서가 될 수 없다는 생각들을 완고하게 갖고 있었다. 시간 낭비나 능률에는 도무지 관심 없이, 공문과 원고나 글월(편지)이나 이력서로 펜이나 골필(骨筆)로 예쁘게 잘 써야만

제대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문명의 이기 중에서도 첫째로 꼽히는 타자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지금도 글자를 예쁘게만 쓰겠다는 사치한 글자 생활 때문에 한글은 위대한 제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타자기는 문화 발전에 가장 으뜸가는 문명의 이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미행정부 문교부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쓰다가 그냥 놓고 간 일본식 국한문 타자기가 각 교육 기관에도 있었고, 일본에서 얼마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상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문 타자기와 같이 한글만을 찍더라도 속도가 빠른 타자기가 교육 기관에서 능률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타자 생활에 익숙한 그들이라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고 열의를 보여 준 것은, 타자기가 그 나라의 문화 발전에 혁명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

문일 것이다.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스미드 편수국장에게 나는 드디어 견본 제작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5주 동안 매주 찾아온 보람이 나타났다면서 곧바로 군정청 문교부 장관실에서 시제품에 대한 실험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

## 발명품에 무관심한 사람들

내가 새로 개발한 한글 타자기의 시제품을 보여주기로 약속한 날, 나는 스미드 씨의 지프차를 타고 문교부 장관실로 갔다. 문교부 장관실에는 미군정 문교 고문관 산하의 한미 관계 고관들이 즐비하게 앉아, 내 설명과 타자기를 신기하게 바라보고들 있었다. 이 때 나는 우리말로 설명하였고, 오천석 장관은 통역까지 해 가면서 타자기의 출현을 반겨 주었다.

그들은 타자기 속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능률적인 타자기에 대해 잘 이해하였다.

미고문관은 빨리 서둘러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며, 생산품이 나오면 다량으로 구입하여 각 교육 기관에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다. 미국에 있는 타자기 회사에 제작을 요청하려면 아닌게 아니라 설계도가 필요한 일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서둘러 설계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뒤 부랴부랴 설계도를 만드는 데 열중하면서 미국에서 제작되어 정식으로 상품이 될 날을 기다리며 꿈에 부풀어 있었다. 설계도 제작, 특히 활자 도안 특히 활자 도안에 이임풍 씨의 도움이 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때 1948년 7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게 되어 미군정 관리와의 인연은 일시에 끊어지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나는 시인 주요한 선생을 찾아가 설계도를 보이고 미국에 있는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에 제작 의뢰를 하는 글월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주 선생께서 글월을 써 주신 덕분에 나는 내가 손으로 만든 시제품을

설계도와 함께 미국 언더우드 회사에 보내어 정식으로 제작하도록 의뢰했다. 1949년의 일이다. 이 때, 지금의 신 안과 원장인 신예용 박사가 안과 연구차, 뉴욕에 가 있었다. 나는 신 박사에게 내 한글 타자기의 미국 특허 출원을 미국인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 달랐다. 그 때는 한국인 변호사는 한 사람도 없었다. 신 박사는 몹시 바쁘데도 내 미국 특허 출원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다. 나는 그 신세를 아직 갚지 못하고 있다. 신 박사가 수고해 준 덕택으로 1950년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특허를 받았다. 1950년 초에 언더우드 회사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글 타자기 견본 한 대가 날씬한 상품이 되어 도착하였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미국의 영자 신문에는, 한글 타자기가 발명되어 언더우드 회사에서 제작되었다는 것과, 세대의 시제품은 주미 한국 대사로 있던 장면 박사, 그리고 연희 대학교 (연세대학교 전신) 의 언더우드 박사, 그리고 발명가인 나에게 각각 한 대씩

보내졌다고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다고 한다.

나는 미국에서 온 시제품을 우리 나라 문교부를 찾아가서 장관 면회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비서실에서는 뜻밖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타자기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 했다. 우리 나라 정부가 정식으로 썼으니 더욱 관심 표명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주 땀판이었다. 어이없게도 면회 거절을 당했다. 나는 그 이튿날 다시 가서 면회를 신청했다. 또 거절을 당했다. 간신히 세 번째 면회를 신청하여 장관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 때 나는 훈련된 타자수도 데리고 가서 빠른 속도로 한글을 찍어내는 타자기의 성능을 과시하였다. 장관은 먼 곳에 앉아서 타자수가 재빨리 치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잘 치는군!” 하는 말을 한 마디 하였을 뿐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안내 직원은 다 끝났으니어서 나가라는 독촉이었다. 장관은 가까이 와서 한글이 어떻게 찍히는가를 보지도 아니하였다. 나는 기가 막혔다. 너무나 무관심한 장관의 태도에

실망만 하고 말았다. 매주 찾아와서 빨리 완성해 달라며 관심을 보여 주던 미군정청 관리보다 제 나라 한글 타자기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아니 전혀 없었다. 집에 돌아왔더니 미국 문화공보원에서 전같이 와 있었다. 서울 시민들을 위하여 한글 타자기의 실험을 하고 싶으니, 기계를 하루만 빌려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기계도 빌려주고, 잘 훈련된 타자수도 딸려 보냈다.

지금의 미도파 아래층에서 새로 발명한 한글 타자기를 하루 동안 일반 시민에게 선보였다. 오고 가는 많은 시민이 구경을 하였는데 그 반응도 가지각색이었다. “영어처럼 우리 나라 글자도 타자기로 찍을 수 있구나!” 하는 반응도 다소 있었지만, 대다수는 “국한문 타자기처럼 한문자가 안 나와 쓸모가 없다!” 고 투정을 부리는 사람, “이거 어디 글자 모양이 이래 가지고 쓸 수 있겠나!” 하고 글씨 모양이 좋지 않다고 타박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한문 글자에 중독된 증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반응이었다. 그리고 속도 빠른 한글 타자기에는 무감각하고 그저 인쇄 활자처럼 예쁜 글자가 안 찍혀진다는 불평뿐이었다. 글을 빠른 속도로 칠 수 있는 타자기와 글자를 예쁘게 찍는 인쇄기를 구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한심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전시 행사를 하고 있는 동안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꼭 한 사람만이 “저렇게 빨리 한글을 찍어낼 수 있으니, 장차 우리도 한글만을 쓰게 될 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타자수가 귀뜸해 주었다. 모처럼 고성능 타자기를 발명해 놓았지만 일반 대중의 호응은 너무나 무지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래도 미국 문화공보원은 이같은 타자기 실물 공개에 이어, 계속해서 그들이 발간하는 월간 잡지에 특집 보도를 하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여 주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도맡아 해 주고 있었다.

그 뒤 곧 6·25 사변이 터졌다. 진해에 피난 가

있을 무렵에도 미국 문화 공보원은 《한글 타자기》란 15분짜리 기록 문화 영화를 만들어 공개하면서 나에게 필름 한 개를 보내 주었다.

그리고 부산에 피난 가 있을 때, 해군에서 당시 손원일 제독의 주선으로 한글 타자기를 미국에서 군수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최현배 박사는 한글 타자기 경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일반인은 글자꼴이 빨랫줄 같다고 타박을 하면서 관심이 없었다. 타자기의 생명은 속도에 있고, 글씨는 손으로 쓴 것보다도 읽기 쉬운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문이나 잡지에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발명되었다는 기사조차도 보도된 적이 없었다. 문교부장관이 한글 타자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라, 속도가 영문 타자기보다도 빠른 타자기가 발명되었지만, 일반 언론인들이 이를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세계적으로 우수한 과학적인 한글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500여 년 동안 천대만 해 온 민족이,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얼른 알아볼 수가 없는 것도 큰 모순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한글 타자기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속도가 40나 느린 네벌식, 또는 50나 느린 두벌식 타자기를 사용하면서 생명처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적잖다. 세벌식으로 한글의 기계화 또는 전산화를 한다면 우리 나라가 일등 문명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바람을 가져 볼 수 있지만, 두벌식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나라는 동메달 정도의 국가로밖에 발전할 수 없다는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다.

## 명사들의 타자기 보급회

나는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만든 한글 타자기 보급을 위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 발명을 크게 환영하고 기뻐했던 선각자 같은 분들에게 계몽시켜 줄 것을 청하였다. <한글 속도 타자

기 보급회)라는 것이 발족되었다. 최현배 선생이 회장이 되었고, 백인제 박사, 주요한 선생, 이광수 선생, 정인섭 박사 등 10여 명이 위원이 되어 한글 타자기의 발명은 민족적인 자랑이며 민족 문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해주었다는 점을 선양하기에 이르렀다. 아무리 진주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일반 민중들이 그 귀한 값어치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 선배 발명가들의 생애가 파산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 이 사회에 널리 알려진 저명한 선각자들의 계몽의 소리가 신문 잡지 와 말을 통하여 퍼지기 시작했으니 머지 않아 일반 사람들의 호응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다.

나는 우리 나라 문교부를 통해 일을 해 보려다가 장관의 무관심한 태도에 실망한 나머지, 주한 미국 경제 원조처(E. C. A.)를 찾아가 내 타자기를 원조 종목에 넣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남의 나라

돈주머니를 빌려 보급시킬 공리를 한다는 자체부터 몹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지만, 문명의 이기를 이해해 주는 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 기관에서는 즉석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때마침 송기주 씨 타자기도 그같은 신청을 해 왔으니, 각각 100대씩을 문교부에 원조하겠다는 것이다.

공문을 모두 세로로 쓰던 때라, 한글을 세로쓰기와 가로쓰기 어느 쪽 타자기가 더 바람직한가는 써 본 사람들에 의해 나중에 결정짓도록 함이 좋겠다는 의견까지 첨부되었다. 우선은 이 200대로 문교부에서 3개월 동안 타자 훈련을 공무원들에게 실시해 줄 것과 수강할 공무원을 미리 선정해 놓도록 하여 차질이 안 생기도록 공문이 문교부에 전달되었다. 더욱이 훈련 장소와 타자기 탁자 같은 것은 문교부 책임 아래 준비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무관심하기만 했던 문교부에서 그

제야 그런 공문을 받고, 나한테 달려와 테이블은 어떤 규격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등의 준비 관계를 묻는 것이었다. 나는 슬그머니 부아가 치밀었다. 그 자리에서 그 관리에게 핀잔을 주었다.

“내가 직접 문교부에 찾아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할 때는 냉랭하기만 하더니, 미국 기관에서 보낸 공문을 받고서는 이렇게도 열심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군요. 이게 다 외국 사람이 아니고, 우리 나라 일인데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결국 문교부장관에게 어이가 없는 일을 당한 분풀이를 문교부 말단 직원에게 털어놓은 셈이니, 그 관리의 심사만 사납게 해 준 듯싶어 한동안 내 마음만 언짢았다. 경제 원조처에서 주문한 200대를 미국에 주문하였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만 곧 6·25 사변이 터지고 말았다.